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이슬람개발부(JAKIM), 할랄 QR코드 도입, 해외할랄인증기관 교차인증 자격 2년에서 3년으로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지난해 말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짜 할랄 육류 스캔들’ 이후의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포장에 QR 코드를 추가하고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외국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책 강구
 - 가짜 할랄 육류 스캔들은 국내 육류 수입업자들이 비할랄 냉동 고기(소고기, 캥거루고기, 말고기)등을 중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해, 말레이시아에서 섞고 재포장하여 할랄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이 골자임
 - 세관 공무원들과 뇌물로 결탁되어 있었던 점과 조직적인 활동이 40년여 동안이나 지속됐던 점 등이 소비자들의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던 사건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육류 스캔들’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할랄 식품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할랄 인증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한다는 방침
 -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할랄 교차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이슬람개발부(JAKIM)는 이슬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말레이시아 해외 할랄 인증기관 승인 절차 2021’(Malaysia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FHCB) 2021) 초안을 발표함

- 푸드네비게이터-아시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JAKIM은 세계 46개국의 84개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을 인정하고 있음
- 이들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은 이슬람개발부(JAKIM)를 대리하여 현지에서 할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권한을 가지며,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중 해외할랄인증기관(FHCB)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기관의 할랄 로고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함
- 말레이시아 인정 해외할랄인증기관(FHCB)으로 임명되면 2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매년 JAKIM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변경된 초안에 따르면, 여기에 더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해외할랄인증기관(FHCB)으로 할랄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은 할랄 로고와 함께 QR코드를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함
- QR코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수입품 검열 집행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됨
- 또한 변경된 초안은 해외할랄인증기관(FHCB) 교차인증 자격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 대신에 승인 첫 해에 해외할랄인증기관(FHCB)의 최고경영진, 할랄 인증 승인 위원회 및 감사인이 이슬람개발부(JAKIM)가 주관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요구
- 초안은 다음과 같은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함 : 식음료(육류, 유제품, 기름, 과일, 야채, 제과점, 생선, 계란, 음료수 등), 식품서비스(레스토랑, 푸드 트럭 등), 소비재(베이비 물티슈, 손 소독제 등), 화장품 및 개인위생(치약, 비누, 샴푸 등), 그 외 제약 및 의료기기

* 출처 : 푸드네비게이터

2 온라인 쇼핑 이용률 증가 및 식품 소비유통시장의 옴니채널화 가속

-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지난 '20년 3월부터 시작된 국가봉쇄 이후 Lazada, Shopee, Qoo10, Prestomall 등 말레이시아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접속자수가 약 600% 증가하였음
- 시장조사기관인 Ipsos Malaysia의 설문 결과 48%의 소비자가 국가봉쇄 기간중 예전보다 더 자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응답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 중 약 절반가량이 식료품 구매고객인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소매협회(Retail Group Malaysia)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락다운이 완화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금년 온라인 쇼핑 총 매출액은 213억 링깃(한화 약 5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추세에 맞춰 Aeon(33개 매장, <https://myaeon.com.my/>), Jaya Grocer(38개 매장, www.jayagrocer.com) 등 기존의 대형 유통체인도 자사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스템을 통합한 옴니채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최신 소비트렌드 반영 노력
- 갈수록 꼼꼼해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난 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구매채널 다변화를 반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 옴니채널(Omni-Channel) :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채널 등 다양한 구매 경로로 상품을 선택 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통해 어떤 경로로 상품을 구매하든 동일한 매장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환경 제공

* 출처 : Brandequity, hemalaysianreserve

3. 음식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 장보기 대행서비스 ‘판다마트(Pandamart)’ 인기에 힘입어 매장 및 입점 품목 지속 확대 계획

- 그랩푸드(Grab Food)와 함께 말레이시아 음식배달대행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가 장보기 대행 서비스인 판다마트(Pandamart)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판다마트 다크스토어(Dark Store) 이사 Ashutosh Gandhi에 따르면 작년 7월 판다마트 1호점 개점 이후 현재 수도권인 슬랑오르와 조호지역 중심으로 25개 지점을 오픈하였음
- * 다크스토어 : 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
- 그는 판다마트 서비스에 대해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안전, 신속성, 편의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언제든지 수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 이라 밝힘
- 그는 이어 “판다마트는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접수로부터 배송까지 20분 내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1회 주문시 장바구니 용량은 정해져있지만 주문 가능한 품목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 주문이 장바구니 용량을 초과하면 다른 라이더가 추가로 동일한 주문에 할당되며 고객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고 설명함
- 판다마트는 3,500여 종의 생필품 판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인기 품목은 생수, 빵, 계란, 우유, 육류와 같은 일상 식료품이 주를 이룸
- 그는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증가한 가정 간편식 수요에 맞추어 올해 부터는 밀키트(Meal kit)를 판매중임, 각 판다마트별로 세계적 수준의 요리사가 선별한 자체 레시피로 구성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키트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키트를 구매하기만 하면 됨. “우리는 이와 같이 고객 니즈에 맞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매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라 덧붙임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배달 대행 서비스의 수요가 늘며,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 노하우와 기존 고객 풀을 이용하여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대표 음식배달대행 서비스인 푸드판다도 기존 서비스 플랫폼에 장보기 대행서비스 전용 오프라인 물류창고를 갖추며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등 한국식품도 이를 활용하여 현지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계획 필요

* 출처 : hype.my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1. 말레이시아산 계란에서 살모넬라 검출…싱가포르서 리콜

- 계란에서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이하 SE: Salmonella enteritidis)가 검출된 후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 제람 지역에 소재한 Lay Hong 농장으로부터 수입된 달걀에 대해 회수를 명령함
- 문제의 달걀과 관련된 싱가포르 내 수입 업체는 다음과 같음 ▶Ang Seng Eggs Supplier, ▶Dasoon Pte Ltd, ▶Heng Guan Food Industrial, ▶Lam Leng Trading Co
- 싱가포르 식품청은 3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염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문제의 농장은 관계 당국에 의해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밝힘

- 이번 살모넬라 오염에 지장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껍질에는 농장 코드번호 ‘CES008’가 찍혀 있음



-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SE에 오염된 식품을 날로 섭취하거나 덜 익혀 먹는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다고 밝힘
- 수출 국가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SE 박테리아의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람 지역에 소재한 레이 홍 농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레이 홍 社(Lay Hong Bhd)가 소유한 모든 농장에서 SE 테스트를 위한 검사 및 샘플링을 진행
-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은 3월 14일 성명에서 오염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달걀의 생산 과정, 예방접종 기록, 농장의 질병 감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 달걀이 생산된 CE008 농장의 달걀은 수출은 물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될 수 없음
- 수의검역청에 따르면, 레이 홍 社는 2곳의 어린 암탉 농장과 8곳의 산란 농장 등 총 10곳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단 한 곳 CE008 농장에서만 싱가포르로 달걀을 수출하고 있음

* 출처 : 더 스타

2. 싱가포르로 밀수출 하려던 해산물 조호 검역검사국에서 대량 적발



- 말레이시아 검역검사본부(MAQIS)는 조호바루의 술탄 아부 바카 이민검역단지에서 4,236kg의 해산물을 싱가포르로 밀수하려는 시도를 적발
- 조호 검역검사본부(MAQIS)는 2월 2일 밤 11시경의 정기검열에서 이를 적발했음을 밝혔음
- 검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에는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다양한 생선과 새우, 오징어 등이 포장되어 4,236kg 가량 실려 있었으며 이는 시가 9만 2,760링깃(약 2,518만원)에 달함
- 유효한 수출 허가 없이 모든 유형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행위는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법 2011 (Act 728)의 11(2) 조항에 반하며, 11(3)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만링깃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스트레이츠타임즈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